

시민 기대·염원 모여 '결실'... 지역경제 신활력

익산시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코스트코가 익산 왕궁에 들어섭니다.



정현울 익산시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트코 익산점 유치 과정과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도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익산에 들어선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주)코스트코 코리아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격이지만 남은 절차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코스트코 익산점'의 유치 과정과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를 직접 설명했다.

익산시와 코스트코 양측이 투자협약서에 서명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계약 해지와 부지 변경 등 우려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을 무산될 위기의 순간들 앞에서 정현울 시장의 끈질긴 독심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런 상황에서 정현울 시장은 끝까지 행동에 나섰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시 차원의 강한 유치 의사를 전달하며 3~4개의 대체 입점 부지를 제안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시민의 아쉬움을 대변하며 직접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절차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변경 제안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



익산점 입점 투자협약식



코스트코 입점부지 전경

지난 8일 투자협약 체결... 연내 착공 목표로 속도 정현울 시장, 직접 본사 찾은 설득 통해 재유치 이끌어 소상공인 상생 전략 마련... 관광지 연계 경제효과 유발

과했고, 지난 3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고시가 이뤄졌다. 전체 부지는 3만7,500㎡(1만1,000여평) 규모이며 800여명이 투자된다. 건축설계와 건축 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이 이뤄지면, 1년 여 기간의 공사를 거쳐 왕궁면에서 코스트코 익산점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하고 있다. 다이로움 지역화 사업과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시는 앞으로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분석해 '다이로움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 강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뛰어난 접근성... 유동 인구 유입 지역 활력 기대 입점과 함께 지역사회에는 유동 인구가 늘며 대형 상권 낙수효과 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왕궁면은 호남고속도로 익산나들목과 1번 국도 등이 위치해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경상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맞닿은 완주군·충남 논산, 전주·김제·군산

등과 함께 '코스트코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유동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인근 관광지와 연계 상승효과도 예측된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자리하는 왕궁면은 현재 인구 5,000명 수준의 조용한 지역이지만, 한때는 백제의 수도로 번성을 누린 고도(古都)다. 1,400년 전 백제 왕궁이 있던 터에는 왕궁리 5층 석탑이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고, 곳곳에 고대 문화 유적이 산재해있다. 특히, 인접한 왕궁보석단지테마파크에는 보석박물관과 다이노키즈월드 등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대형 실내 놀이시설과 야외 스카이프롭, 22m 높이의 초대형 미끄럼틀 등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광단지다.

정현울 시장은 "그간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코스트코 익산점 개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익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정현울 시장의 포부

“가장 모범적인 코스트코 지역 정착 사례 만들 것”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호남권 첫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코스트코가 앞으로 익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으며 코스트코 익산점 개점을 준비하는 여정의 출발선에 선 정현울 익산시장은 9일 기쁨과 함께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 개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기도 했다.

“호남권으로서는 최초 개점 인근 도시주민에 좋은 선물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지원”

“사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지난해 한 차례 입점 최초의 위기를 겪었다. 정 시장은 실망감에 빠진 시민을 대신해 코스트코코리아 측의 마음을 돌리고자 직접 본사를 찾아가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하며 대체부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 시장은 가장 모범적인 코스트코 지역 정착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지원해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전북의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완주, 논산 등에 인접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는 왕궁은 뛰어난 접근성이 강점인 만큼 유동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관광 상품 개발에 힘쓰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전략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뤄낸 코스트코 익산점 재유치 성공은 27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은 물론 익산시 직원들과, 지역 정치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은 귀한 성과”라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개점까지 남은 절차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추진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